
제3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7년12월2일(단기4290년)(월) 오전10시45분

제3회정기회의 개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45분 개식)

○간사장 신용석; 오래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착석해주시요. 지금부터 제3회정기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착석해주시요.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식사

이번 정기회의는 우리집행부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과거 일년간 시정을 운영해온 여러가지 사항은 참적나라하게 나타난 17회임시회의에서 현년도의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후 또한 그예산편성이 당초에 적당하게 되었는가 혹은 아니되었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정감사로서 실무적으로 여러가지를 잘 파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예산을 다시 심의하게 될때에는 그야말로 지난날 우리가 알고있는바에 의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잘 검토가 될줄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시민대중은 집행부와 그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으며 하는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올시다.

또한 우리의회에 대해서도 그시민대중이 우리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있는가 어떤가? 그러한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일년간 그집행당국에서 여러가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것을 잘알고 있을터이니 그 현실에 잘맞게 그예산을 적절하게 짜주며 또한 급한것과 급하지 않는 것을 잘분간할수있는 대활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가 안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대중이 우리의회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총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또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정말로 날카로운 눈초리로 향해보고 있는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답에 우리 의원들은 언제나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해도 특별히 이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나와서 시의회로 보내주시요하는 그때의 그정신을 환원해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대변인이 되겠다고하는것을 명심해야 될것이며 인정해야 될것이고 시민들의 실정이 예산심의면에 반영되게 하기위해서 노력해야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의에는 우리가 그명실상부주의를 엄격히 취해주셔서 거기에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심의를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로써 개회사를 막는바입니다.

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 고재봉; 오늘 제3회의 정기회의개회에 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회의로 말씀하면 법에 규정된 회의이기도 하려니와 특히 다가오는 새해를 마지하는 새살림의 지침이되는 429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심의가 있게 될것이므로 여러분께서는 수도시정의 대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조와 수고를 기우려 주실줄 믿는바입니다.

신년도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면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수도부흥재건과 복지행정의 실효를 기하려는 중점을 두어 건실성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간 여러분께서 회의가 있을때마다 보여주신 여러분의 뜻이 될수있는데로 잘반영되어지도록 노력하겠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아무조록 본안이 법정기일내에 유종의 결실을 보게 되어 신년도 초부터 심기일전 새로운 호흡아래 웅건하고도 빛나는 설계도에 의하여 소기이상의 성과가 견어지게 되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간사장 신용석; 이상으로서 식순을 마치고 다음은 만세삼창을 부의장님께서 선창해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우리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삼창)

○간사장 신용석; 이상으로서 제3회 정기회의 개회식을 마칠 것입니다.

5분후에 본회의로 드러가겠습니다.

(10시 55분 폐식)
